

# 협회소식

## 본회, PMWS 관련 민·관 합동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건의

### - 본회 회장단, 검역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본회 최영열 회장과 김동환 부회장, 윤주성 부회장, 이병모 부회장, 이재식 부회장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명 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내 일선 현장에서의 방역과 관련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등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본회 회장단은 이날 박종명 원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평소 검역원의 활동사항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몇가지 본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본회는 돼지콜레라 병명이 사람 콜레라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돼지콜레라 명칭을 '돈열' 또는 '돼지열병'으로 조속한 시일내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폐사축 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행 농가에서 폐사축을 소각·매몰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폐사축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해 질병 모니터링 기능 및 폐사축에 의한 2차적인 질병 예방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전국 양돈장의 PMWS(돼지 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피해대책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양돈실정에 맞는 한국형 PMWS 예방 대책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농가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도축장 소독시설 가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돼지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질병전파의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 또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검역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과 관련,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선 양돈장의 현장 행정처리 업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위탁농장 등 돼지이동 경로가 빈번 또는 다양함에 따라 방역요원 등 점검 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떨이돼지 등 돼지 이동 추적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PED, TGE, PRRS, AR, 오제스키 등 현재 2종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 이동제한 등의 실시로 인해 농가가 불편함을

격음으로 인해 질병발생을 미신고 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일이 있어 가축 방역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발생됨으로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의 경우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등에 대하여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 지침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역원 박종명 원장은 “돼지콜레라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폐사축 처리와 관련해서도 농림부와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과 관련해 “8개도 8개시·군에 대해 먼저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할 계획이므로 양돈협회도 농가계도 등을 통해 이동가축에 대한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본회,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돼지고기 포함 요청

### - 이인기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중 개정 법률 (안) 개정 내용중

본회는 최근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을 수입 쇠고기뿐만 되어있는 것을 돼지고기 및 닭고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본회는 이인기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 발의 의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발의 의안 제안이유 부분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이 수입 쇠고기만 한정되어 있어 돼지고기도 포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본회는 이와 관련해 2002년도 농림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17.0kg으로 쇠고기 8.5kg, 닭고기 8kg 보다도 두배 이상 소비가 많으며, 2001년 농림통계연보에 의하면 농업 총생산액 약 32조원중 축산업 총생산액 약 8조3천억원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양돈업 총생산액이 약 2조7천억원으로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3%를 차지하는 등 돼지고기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육류 식품중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국민 식품으로 성장했다고 밝히고, 이처럼 돼지고기가 국내 소비자로부터 국민식품으로 사랑받고 있어 악덕 상인들이 음식점에서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도 다른 육류 품목보다 많기 때문에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쇠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이인기 국회의원은 식품의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에 수입한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서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게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한국형 양돈 품질인증제도 마련 시급해”

- 지난 6월 2일 본회 회장단·고문 간담회 가져

본회는 지난 6월 2일 최영열 회장 및 회장



단과 김건태 명예회장, 한백용 고문, 윤희진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모인 본회 고문들은 최근 일부 도축업체가 제소한 양돈자조금 관련 헌법소원 청구가 취하되는 등 양돈자조금제도가 초기의 내용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출발한 것을 축하하고 양돈자조금사업을 바탕으로 미래의 양돈산업이 농업전체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양돈협회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문들은 등록제 시행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입장정리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형 양돈표준인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한층 발전된 양돈산업의 청사진을 협회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분뇨처리에 관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일선농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뇨처리에 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문들은 방역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양돈농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PMWS

등 양돈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열 회장은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조속한 농림부 승인을 요청중이라고 밝히며 “양돈자조금 사업을 통해 양돈인 스스로가 양돈산업을 위해 참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타 축종들이 자조금사업을 시작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PMWS와 관련해 해외 및 국내의 다양한 극복사례를 발굴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해외 권위자들을 초청하는 등 질병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본회, 자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제출

### - 농림부, 자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수렴

본회는 지난 6월 15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본회가 자조금법과 관련해 개정을 요청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축산단체의 장이 양돈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겸직일 경우에는 위원장도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6조(가축사육두수의 조사기준 등)에서 조사기준을 완화했으며, 제9조(대의원회 출석 및 위임) 1항에서 대의원회에 소집된 대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 대의원에게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회의 개최전까지 축산단체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제9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거출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축산단체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해 징수수료 한도액을 인상, 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요구를 반영했다.

또한 제10조(거출금의 수납·관리) 3항에서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다음달 10일에서 15일까지 해당 축산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신설해 축산단체는 수납기관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경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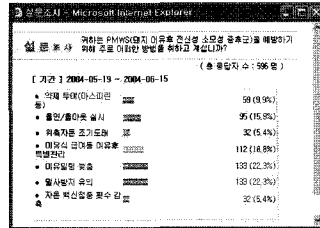
### 본회, 양돈농가 사료 이용 실태조사 착수

본회는 최근 사상 초유의 사료값 인상으로 전국 양돈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각 배합사료 업체에서는 자사의 사료가격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료가격 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배합사료 업체의 사료값 인상을 억제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이용 실태 조사를 착수키로 하고 각 지부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다.

본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사료값 인상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양돈농가, PMWS 예방 위해 밀사방지와 이유일령 늦추

- 본회 설문조사서 양돈농가 44.6% 응답



양돈농가들은 최근 양돈농가에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잡은 PMWS의 예방방법 중 이유일령을 늦추

는 방법과 밀사방지 유의에 가장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는 PMWS(돼지 이유후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양돈 네티즌은 총 596명이며, 이 가운데 ‘이유일령 늦춤’에 응답한 네티즌이 133명으로 22.3%를 차지했고, ‘밀사방지 유의’에 응답한 네티즌도 133명으로 22.3%를 차지해, 양돈농가들이 PMWS 예방을 위해 이유일령을 늦추고, 밀사방지에 유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최근 농림부 등은 PMWS 예방방법 중 밀사방지 등의 중요성을 밝혔는데, 많은 농가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유식 급여등 이유후 특별관리’가 18.8%, ‘울인/울아웃 실시’가 15.9%, ‘약제투여’ 사용이 9.9%를 차지했고, ‘위축자돈 조기도태’ 및 ‘자돈 백신접종 횟수 감축’이 각각 5.4%를 차지했다.

## 본회 최영열 회장, 6월 7일부터 14일 까지 해외 선진지 연수



본회 최영열 회장은 양돈수급안정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아يو와주 데모인에서 개최되는 '2004 세계 양돈박람회' 등 미국의 첨단 양돈산업을 시찰하고, 세계 돈육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선진 수급 및 가격안정제도를 국내에 접목함으로써 지속적인 양돈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해외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귀국하였다.

##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7만 6천원

지난 5월 20일(목)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37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7만6천76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3두를 비롯 총 132두의 합격돈이 상장되어 전 두수가 낙찰된 이날 경매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87만1,53원(95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5만8천원(35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포천종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70점) 슈퍼돈이 경북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431-12번지 양진선(동아농장)씨에게 최고 낙찰가인 3백20만원에 낙찰됐다.

##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9만 7천원

지난 6월 10일(목)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66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9만7천79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슈퍼돈 2두를 비롯, 최우수돈 8두 포함 총 155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두만이 유찰된 가운데 154두가 낙찰됐으며,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2만9천917원(120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70만3천235원(34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1점) 슈퍼돈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룡동 89-5번지 박종태(축산기술연구소)씨에게 최고 낙찰가인 3백80만원에 낙찰됐으며, 성현농장 듀록(선발지수 264점) 최우수돈이 2백50만원에 낙찰되는 등 낙찰금액은 총 1억4천7백50만원을 나타냈다.

##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 경기도협,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 방향 교육 실시

경기도협의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이천 도드람 양돈연수원에서 도협 의회를 개최하고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

은 조직관리와 리더십 훈련에 관한 강의를 듣고, 도드람 양돈농협 윤태환 박사를 통해 분뇨처리방법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김건호 도협의회장의 경기도 협의회 발전에 관한 강의를 듣고 도협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그밖에 자조금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며 자조금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 화성지부, 사료 값 인상 등 현안 논의

화성지부(지부장 이정배)는 지난 5월 18일 지부 사무실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 김동환 부회장,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이정배 지부장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영열 회장은 양돈자조금 추진현황 및 사업방향에 관해 강의를 하고 회원들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농장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PMWS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본회 최영열 회장과 의 간담회를 통해 양돈장 분뇨처리의 획기적인 방안과 최근 사료값 인상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본회 주양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 등을 요구했다.

### 충주지부, 등록제와 분뇨처리 등 현안 논의

충주지부(지부장 장용기)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1시 충주지부 사무실에서 최영열 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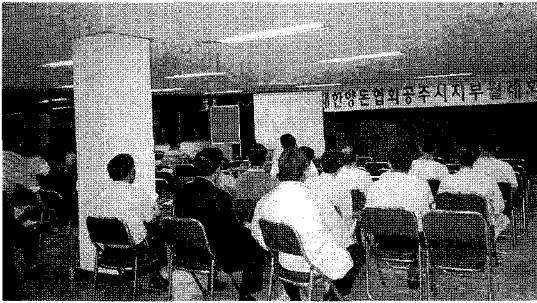
회장, 장용기 지부장, 권영 충주시 축산계장, 이병상 충주축협 상무 등 축산관련단체 인사와 지부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 최영열 회장은 자조금 거출과 자조금 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축산업 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등록제에 양돈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양돈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양돈 분뇨처리 대책에 관한 대책들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5월 18일에 지부 임원 및 회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추진하는 '이동가축 방역확인 시스템'과 관련해 충주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회를 가졌다.

### 공주지부, 자조금사업 적극 참여 결의

공주지부(지부장 김광의)는 지난 6월 3일 공주축협 회의실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과 김광의 지부장 외 회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최영열 회장의 양돈자조금 사업 계획 및 운용 방안에 대한 강의를 있었으며, 이에 따른 회



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함께 양돈자조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회원들은 형평성 있는 돈가를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 시세를 적용하는 요청과 돈열 백신집종 후 농가 피해에 대한 협회의 노력, 축산업등록제 시행시 돼지 두 당 배출 용량 조절에 관련된 사항이 논의되었다. 최영열 회장은 농가의 피해가 있을시 전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며, 앞으로 등급제를 통한 품질별 시세 적용을 추진할 것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평택지부, 6월 월례회의 개최

평택지부(지부장 김용진)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그린가든 웨딩홀에서 김용진 지부장 등 지부회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PMWS 질병 예방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었고, 축산환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 양평지부, PMWS 관리와 예방 등 논의

양평지부(지부장 조원묵)는 지난 6월 11일 협회사무실에서 조원묵 지부장과 1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회원들은 PMWS에 대한 증상을 정확히 알고, 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양평군청의 설명회가 있었다.

### 원주지부, 정기 월례회 개최

원주지부(지부장 이병만)는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 원주지부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양돈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PMWS에 관한 문제로 세미나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지부 회원들은 PMWS관리 방법 및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농장에서 PMWS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했다.

### 군위지부, PMWS 관련 세미나 개최

군위지부(지부장 정장규)는 지난 6월 4일 군위축협 2층 회의실에서 정장규 지부장 등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부 회원들은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PMWS와 관련해 가축 위생시험소 조광현 박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농장에서 PMWS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 등에 대해 배웠다.

### 울산지부, 춘계 단합대회 개최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는 지난 5월 18일 이상국 지부장 등 지부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동 해변가에서 춘계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제1회 포천시 축산 페스티벌’ 개최

### -포천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개최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는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제1회 포천시 축산 페스티벌’ 행사에 맞춰 행사장인 산정호수에서 돼지고기 요리 무료시식회를 행사를 전개하였다.

돼지고기 전·후지를 이용한 간장불고기와 고추장 불고기와 아울러 등심을 이용한 돈가스 요리 등 다양한 수출부위 요리를 시식할 수 있었으며, 전·후지를 이용하여 만든 돼지 불고기 샐러드, 목살을 이용하여 만든 편육수삼무침, 등심을 이용한 돼지고기 깡뎡기, 육포 등의 요리가 전시되기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106페이지 참조)

## 성주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개최

성주지부(지부장 이종철)는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성주읍 성박 숲에서 개최된 성부 참외 축제 행사장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전개했다. 돼지고기 수출부위 주물럭 요리와 참나무 숯불구이 요리를 제공하였으며, 1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아울러 성주지부 브랜드인 ‘포동이 포크’의 특이성과 육질과 맛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려졌다.

## 보성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개최

보성지부(지부장 선희기)는 지난 5월 5일 보성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보성다향제 행사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전개

했다. 100m 길이의 돈가스를 조리·제공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 안성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개최

안성지부(지부장 김상수)는 지난 5월 5일 제11회 안성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를 맞이하여 안성 종합운동장에서 관내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했다. 약 4,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 함안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개최

함안지부(지부장 함연수)는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라제 축제를 맞이해 아라제 행사장 내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수출부위를 이용한 돼지고기 요리와 본인햄 등을 제공하였으며, 삼겹살 위주로 편중된 입맛을 바꾸는데 일조하였다.

## 익산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개최

본회 익산지부(지부장 신동현)는 지난 5월 10일 익산 시민의 날 행사를 맞아 익산시 공설운동장 내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했다. 전·후지로 만든 돼지고기 양념육, 불고기 등의 요리가 제공되어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시장, 의회의장, 익산 농협장, 익산 축협장, 축산관련단체장, 요식업조합장 등 각 지도계층의 인사들이 함께 돼지고기 소비 촉진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양돈**